

# 자연을 찾아서



 Kaikōura  
Canterbury

남태평양의 가장 아래쪽에는 독특한 동식물로 가득 찬 특별한 곳, 뉴질랜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섬에 있는 거대한 간헐천과 끓어오르는 머드풀부터 남섬의 거친 해안선과 1억 8천만 년 전에 형성된 화석림에 이르기까지 뉴질랜드는 말 그대로 풍요의 땅입니다. 연안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 야생동물, 울창한 온대림에 서식하는 고대 곤충과 파충류 그리고 낮에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밤에는 숲의 지표면을 배회하는 다채로운 조류를 만나 보세요.

**100% PURE NEW ZEALAND**  
newzealand.com

## 신비한 피오르 크루즈

버스와 데이 크루즈, 오버나이트 크루즈가 결합된 투어 또는 관광비행과 함께 밀포드사운드를 여행해 보세요.. 버스를 타고 풀로 덮인 넓은 벌판과 빙하 호수 그리고 고산 들판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경비행기를 타고 눈으로 덮인 장관을 이루는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위를 날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칙칙같이 검은 물과 눈으로 뒤덮인 새하얀 고산 봉우리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감상하고, 투어 보트가 깎아지른 듯한 암벽 가까이에 접근할 때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시원한 물줄기를 즐겨 보세요.

다우트풀사운드에서는 작지만 친밀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로 마나포우리 호수를 건넌 후 버스를 타고 아고산대 도로를 따라 달리며 울창한 우림을 지나면 크루즈 여행이 시작되는 딥코브에 도착합니다. 고요를 경험할 수 있는 오버나이트 크루즈에 탑승하면 이곳이 왜 파테아(Patea)라고 이름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테아는 다우트풀사운드의 마오리 이름으로 '침묵의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루즈 갑판에서 뛰어내려 상쾌한 바다에 몸을 담가 보세요. 큰돌고래, 뉴질랜드물개, 피오르드랜드펭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 돌고래, 고래, 펭귄

뉴질랜드에는 수많은 해양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베이오브아일랜드, 말버러사운드, 카이코우라 그리고 뱅크스 반도의 아카로아는 돌고래를 연중 내내 관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해양 동물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싶다면 카이코우라에서 더스키돌고래와의 수영 투어에 참여해 보세요. 보트를 타고 고래를 관찰하거나, 경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거대한 고래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18종의 펭귄이 있는데 이 중 13종을 뉴질랜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남섬의 동해안에 위치한 오아마루 쇠푸른펭귄 서식지는 펭귄들이 바다에서 돌아와 바위를 넘고 지하도를 통과해 마을 외곽에 있는 동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카로아의 포하투에는 오스트랄라시안 리틀펭귄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야생동물 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보존 노력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곳에서는 펭귄의 삶에 대해 배우고 펭귄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경이로운 지열 현상

유명한 핑크 앤드 화이트 테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이망구 화산 계곡의 경이로운 지열 지대에서 노를 저어 보세요. 경이로운 지열 지대로 들어가서 장관을 이루는 분화구와 온천을 탐방한 후 로토마하나 호수에서 가이드와 함께 카약을 탑니다. 증기가 솟아오르는 절벽의 비밀을 알아보고 간헐천과 분기공(지표면에서 기체와 수증기를 분출하는 구멍) 등 자연의 힘을 관찰해 보세요.

## 키위새

키위새는 수줍음이 많고 쉽게 찾기 힘든 새이기 때문에 야생에서 키위새를 관찰하는 것은 진귀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키위새를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스튜어트섬으로 현지 가이드가 키위새가 숨어있는 비밀의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북섬의 웰링턴에 위치한 질랜드리아에서는 키위새의 소리를 듣고 숲을 돌아다니는 키위새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야간 투어를 제공합니다. 이 소중한 키위새에 대해 배우고, 키위새를 구조하기 위해 보존 및 구조 센터에서 현재 진행중인 노력에 대해 알아보세요.



Milford Sound, Fiordland



Little Blue Penguins, Oamaru



Lake Rotomahana, Rotorua



Te Puia, Rotorua